

하박국 강해⑧ “명쾌한 해답 4 - 화 있을진저”

하박국 2장 15-20절

15.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6.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17. 이는 네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18.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9.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20.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우리는 계속되는 하박국의 예언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되고 악인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는 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도도하게 넘어오는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계속되는 심판으로 인해 온 천하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게 하는 자. . .

하박국 2장 15절

15.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갈대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이웃과 함께 나누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본능일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만 죄악을 행할 때는 불안하지만, 남들과 함께 그 죄를 공유할 때, 죄인이 받는 위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죄악을 행할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왜 남편에게도 권했을까요? 어쩌면 자신에게 찾아온 불안과 두려움이 남편의 동참으로 사라질 수 있다거나 반감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런 죄인들의 속성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죄악을 옮기는 자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자신이 술을 마실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술을 마시게 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아주 근원적인 술 먹는 자들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회식문화’였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언급했듯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은 ‘외딴 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목사로서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때는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자신의 종교와 관계없이 목회자를 찾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움요청’은 아무에게나 혹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관계를 형성하거나 신뢰를 쌓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평소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죠.

군대에서는 그것이 늘 운동과 회식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본래 운동을 좋아하니 장교들과는 테니스를, 병사들과는 축구와 농구를 하면서 어울렸습니다. 문제는 대대단위로, 혹은 연대단위로 열리는 회식자리였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가기 싫은 자리는 피하면 그만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사명감이 생기니 ‘일터’를 포기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회식자리에 참여하면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누구나 잔을 들어야 합니다. 다행히 제가 속한 부대의 지휘관은 제가 세례를 베푼 분이기 때문에 늘 소주잔 대신 사이다 잔을 준비해 줬습니다. 그리고 늘 소주와 같은 색의 사이다를 잔에 가득 부어주었습니다.

참 힘들게 사이다를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술 먹는 사람들은 술을 먹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까?

이런 술 문화가 동서고금을 따지지 않고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또한 술을 먹는 사람은 주변에 술 먹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한 모양입니다. 술을 마시면 대다수 나타나는 일이 ‘일탈’이죠. 제정신을 가지고 하지 못할 일을, 술이 취하면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정신이 말짱한 사람이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 술을 먹고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 술을 권하는 것입니다. 같이 망가지고, 같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 술을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먼저 성경의 이야기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5:11

11.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잠언 20:1

1.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23:29-30

29.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30.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잡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에베소서 5:18

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경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로마서 13:12-13

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술 취하는 문제는 바벨론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9:20-27에 나오는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바벨론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므로 범죄 했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술 취하지 않았으면 내지 않을 사고가 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일이 벌어지는 현장에 술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불의한 일이 오가는 현장에서도 술이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술 취함’의 문제는 그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함으로 일어나는 일들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술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심장을 위해 포도주를 마시고,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고 시원하게 맥주를 마시거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술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함이 훼손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술 취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 그것을 통해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는 상극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술을 취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유지할 자신이 있다면 마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술에 취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할까 염려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더 심각한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제 16절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하박국 2장 16절

16.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술을 마시게 해서 하체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 바벨론의 이러한 행위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를 갚으시는 하나님은 바벨론에게도 수치가 돌아갈 것인데, 자신들이 행한 것 이상으로 창피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 손의 잔’이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에 대한 강해를 들으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곳에서 쉽게 무너지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정확한 계산’인 듯합니다. 여기에서 계산이란 산술적인 의미의 계산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몽뚱그러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관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용서에 대한 대가는 누구를 통해서든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하나님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에 대하여 용서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상처가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벨론이 받아야 할 보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 이는 네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말씀하시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 중 하나인 갈대아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네가” 는 갈대아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상징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하나는 ‘레바논’ 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레바논’ 이란 지역적인 의미보다 예루살렘 성전과 팔레스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바논이란 ‘깨끗하다’ ‘희다’ ‘흠이 없다’ 라는 히브리어의 동사 ‘라반’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 이란 바로 팔레스틴을 살육하고 약탈하였다는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짐승을 두렵게 한 것’ 이란 유대의 백성들을 마치 짐승을 대하듯이 포획하거나 도살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잔해한 사람의 피,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에 대한 분명한 보응을 받게 되리라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 .

18절 부터는 바벨론에 대한 다섯 번째 저주가 선포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8-19절

18.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9.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여기서 ‘새긴 우상’이란 돌이나 나무를 조각하여 만든 우상을 가리킵니다. 조금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우상이란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부어 만든 우상’이란 금속으로 주조해서 만든 우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문의 뜻에 의하면 “부어 만든 우상과 거짓 스승 역시 새긴 우상처럼 무익하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짓 스승’이란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에게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이 이 피조물들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얻으리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너희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한 우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기가 없으므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명 없는 우상 앞에 인간들이 경배하고 의지하는 행위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극악한 죄악으로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야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은 늘 우상숭배의 위협 속에서 살았을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맞보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분깃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인생의 고난과 광야의 시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지만, 살만 하면 다시 하나님을 잊고 우상숭배를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인간의 심리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은 인간은 하나님의 권한을 제한하고 싶어합니다. 형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곳에 제한해 놓고 그 형상이 없는 곳에서는 마음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숨어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하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살만해져서 그들의 삶을 즐기려고 하니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민망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이죠.

그러니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비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죠.

아!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상이구나!

이제 무언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본질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뿐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축복을 받으면, 다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여기에 ‘yes and no’의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부유해지면 타락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잠언 30장 8절)

‘하나님이여 나로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지어다

하박국 2장 20절

20. 오직 여호와라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형상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전’이 건물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현대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이중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거하실 때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16에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20절에서 하박국은 우상을 섬기는 것의 헛됨과 아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경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인간들의 행위 즉, 우상들을 향하여 ‘깨어라’ ‘일 어서라’ 분주하였다면, 우리 하나님은 ‘잠잠함’ 가운데 드러나시는 분이라는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부르지 않아도, 돌과 나무로 만들지 않아도, 은과 금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나폴레옹이 그의 군대들 앞에서 거친 말 위에 탄 채 말고삐를 놓치고 말았다.

그 때 한 병사가 말고삐를 잡아 말을 제어하여 나폴레옹의 생명을 구했다.

나폴레옹은 “고맙다 대위!”라고 말했다. 그 병사는 ‘저는 대위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자 나폴레옹은 지금부터 대위로 임명한다고 말하고 그 병사는 장교들의 대열로 가서 서게 되었다.

장교들은 “병사! 자기 자리로 가!”라고 책망했다. 그러자 그 병사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대위다. 각하께서 나를 대위로 임명했다.” 모든 장교들은 입을 다물었다.

비록 모든 마귀들이 우리를 공박하고,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함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이 우리들 앞에 잠잠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전하에 선포하십시오.